

# 정주여건 개선·일자리 창출...도민 삶의 질 한 단계 높인다



올해 창립 17년 맞는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전남 인재 육성을 위해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재)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했다. 지난 2004년 전남도가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해 맞을 올린 공사는 그동안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전남 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정진하며 2020년 말 기준 자본금 3907억원에 매출액 2515억원의 거대 공기업으로 거듭났다.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미개척지였던 남약 신도시를 공공기관·주거·상업·녹지 등이 어우러진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빛가람혁신도시사업,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전남도의 역점사업과 각 시군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도맡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본금 규모가 약 80배 성장한 공사가 17년 전 전남도가 출자한 금액 그대로 도민에게 되갚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금액으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탁식에서 "마음이 든든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7월 김철신 제7대 사장이 취임하면서 공사는 경영,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질적 성장과 성과의 지역 나눔 측면에 주력하고 있다.

창립 이후 최초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와 '최우수 등급'을 동시에 달성했으며, 5년 연속 흑자 경영, 올해까지 6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도서관(J-Book)을 구축해 전남도 주관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재정신속집행 실적 우수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사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인구 유입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내 정주여건의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다. 280만5000㎡면적에 9823세대(계획인구 2만4550명)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7월 1단계 73만9000㎡가 준공돼 2500세대가 입주해 있다. 오는 2024년 최종 준공되면 남약지구(363만2000㎡)와 더불어 남약신도시 위용이 갖춰질 것으로 공사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숙원 사업인 여수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오는 2024년 완공되면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면적 98만4000㎡의 면적에 5776세대(계획인구 1만3864명)가 거주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착공했으며, 친환경·자족도시로 변모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내 열악한 정주여건이 결국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도내 19개 군과 협력해 중소규모의 신규 개발사업 또한 진행하기로 했다. 담양군 고서면 보천리에 진행중인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면적 88만6000㎡



전남개발공사 전경

## 창립 17년 만에 자본금 80배 성장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여수경도·신재생에너지사업 도맡아 남약 오룡·여수 죽림 택지개발 순조 영광·신안 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

(3971세대 8735명 계획) 규모로 인접한 광주의 인구 유입에 대비해 양질의 주택과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재 대상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전남의 미래먹거리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역시 공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주민민원이나 산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과 관련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도민발전소 건립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1호 도민발전소'는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구례 섬진강어류생태관 유후부지에 500kW 규모로 설치해 현재 상용발전 중이고, '2호 도민발전소'는 전남도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은 나주 옛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20MW 규모로 설치해 발전소익의 일부를 전남도 인재육성기금에 기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지난 2018년에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해상풍력사업은 영광, 신안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광에는 지난해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28M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 승인을 받은 단지에 80MW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4.3MW 규모의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착공해 2022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신안의 4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운데 공사는 100MW에 대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맡을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해상풍황 계측기를 설치해 풍력자원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공기업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공공개발에 의한 이익을 최대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추구하고 앞으로도 세계 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역인재 장학금·수해복구 봉사 활동 공공개발 이익 지역사회에 환원 앞장

###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철신 제7대 사장이 취임한 지 3년째를 맞았다. 그는 정치인 출신으로, 공기업 경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다양한 시도를 접목시키며 조직 전반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의 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 새롭게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 합심된 노력과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 자본금이나 매출액만이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 명실상부한 최우수 공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취임 이후 줄곧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도민이 지어준 기업인데,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언제나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봉사활동 조직체인 '나눔이 봉사단'을 발족해 복지시설 위문활동, 구레·곡성 수해복구 지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재능기부 사업, 연탄나눔 행사와 관내 보육시설 산타원정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평균 3.5회 20시간을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사회적 약자 우선채용을 위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 가산점 부여, 사회 소외 계층 기부실적 우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약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다. 그 외에도 20억원 규모의 '전남행복 동행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모두 도민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공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까지 내놨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난해 최대 경영 실적을 달성한 뒤 도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위해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에 따랐다. 기탁한 장학금이 지역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남다른 원칙이 있다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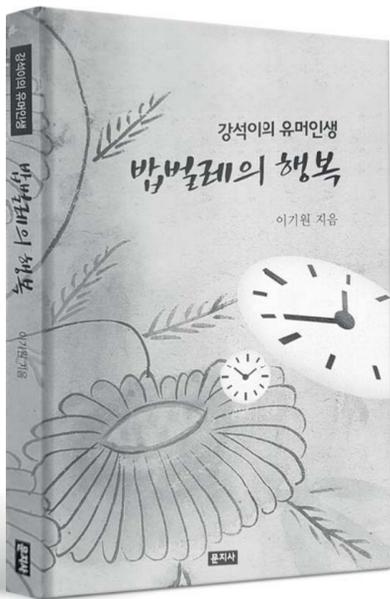
## '나눔이 봉사단' 복지시설 위문 지역 인재 정원 3% 정규직 채용 지방공기업 첫 사회적 약자 가산점 행복 동행펀드 20억 소상공인 대출

▲그동안 단순 택지개발 용지공급 위주의 사업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도민 주거복지 높이기 위해 대상지 내에 시범적으로 공공주택사업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개발이 도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도 전남의 주력산업이라면 공사가 뛰어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태양광이나 기술이나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6~7년이 소요되는 해상풍력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신속한 새해 코로나19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것 같아 소망한다.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등에 부응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 또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 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계속하겠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가 12,000원

##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